

# 공공도서관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 A Study on Young Adults' Reading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한 윤 옥(Yoon-Ok Han)\*\*

이 연 옥(Yeon-Ok Lee)\*\*\*

### 목 차

- |                          |                                    |
|--------------------------|------------------------------------|
| 1. 서 론                   | 4. 공공도서관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의 과제와 운영방향      |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4.1 도서관의 본질, 독서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이해     |
| 1.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 4.2 청소년들의 상황과 여건에 대한 고려            |
| 2.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현황  | 4.3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 유도                 |
| 2.1 독서교실                 | 4.4 독서회의 활성화                       |
| 2.2 독서회                  | 4.5 사서가 주도하는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사서의 전문성 개발 |
| 3. 공공도서관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의 문제점 | 4.6 독서프로그램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서비스의 기획  |
| 3.1 도서관 독서교육의 정체성 미흡     | 5. 결 론                             |
| 3.2 강의에 치중하는 독서교육        |                                    |
| 3.3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의 저조      |                                    |
| 3.4 독서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       |                                    |
| 3.5 사서의 전문성과 주도성 부족      |                                    |

### 초 록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대상 독서프로그램의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의 과제와 운영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대상의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42곳으로부터 응답한 설문지분석을 통해 공공도서관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의 지향과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운영방향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current situation of young adults' reading programs in public librar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to the young adults' program librarians on the current state of the young adults' reading program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directions of reading education, reading policy and reading programs operation in public library.

키워드: 독서교육, 독서프로그램, 독서문화, 독서정책, 독서진흥, 공공도서관, 청소년  
Reading Instruction, Reading Program, Reading Culture, Reading Policy,  
Public Library, Young Adults, Youths

\* 이 연구는 2007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위탁연구과제 중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ohan@kyonggi.ac.kr)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idisfeel@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8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3월 25일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모든 국민은 정보 접근과 독서를 통한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들이 학교 교육을 비롯한 평생 교육과정을 통하여 정보활용능력을 함양하고, 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정보제공 기관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쉽게 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 기반과 제도를 확립하고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은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못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수는 인구대비로 볼 때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청소년에 대한 도서관의 봉사는 다른 어느 연령층이나 계층에 대한 것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에 대한 대안은 많은 공공도서관의 건립과 함께 학교도서관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를 채워주며, 그들에 대한 독서진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독서교육은 학교만의 노력이나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청소년은 인간 발달단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로서 주변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거부하면서도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공교육 차원의 학교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도서관과 같은 사회적 교육기관의 적절한 프로그램이 부차적으로 필요해진다. 개토는 '교실의 고백'에서 도서관은 학교와 달

리 청소년을 규격화 시키거나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강요하지 않고,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책이 진정한 교육을 하는 매체에 비하여 학교의 교과서는 훈련을 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토는 교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도서관에서의 교육이 학교 교육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도서관에서의 책임기가 어떤 교육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도서관의 사서가 교사와 어떻게 다를 수 있으며, 도서관이 학교교육에 거부감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특성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활동의 성격은 독서의 근본적인 성격과 잘 부합되고 있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존 테일러 개토 2006).

개토의 지적처럼 도서관에서의 활동이 개인적이고, 자유롭고, 주체적인 것처럼 독서 역시 그렇다. 독서는 개개인이 책을 읽는 행위이며, 책의 내용을 각자의 지적인 수준과 정서적 상태, 경험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지적활동이다. 이것은 곧 도서관에서 독서를 한다는 것이 왜 자유로울 수 있고, 주체적일 수 있으며, 민주적인 활동인지 그리고 도서관에서의 독서 활동과 그것을 진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왜 개발되고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자체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물론이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독서교육을 밖에서 지원하여 줌으로써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정해진 교육기간에 이루어

지는 학교 교육과는 달리 책이나 그 밖의 도서관 소장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독서교육이나 관련 정보봉사를 행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평생교육은 결국 사회 전체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독서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에 기반하는 독서교육의 특성과 가치를 실행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도서관은 시민의 독서력 향상을 위해 오랜 기간동안 그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아직 도서관이 사회적 독서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도서관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도서관의 내부적 요인들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내부로 눈을 돌려서 도서관의 독서교육의 현재적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독서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현재 공공도서관 독서교육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속에 내재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이와 같은 작업은 공공도서관에 기반하는 독서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대상의 독서프로그램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청소년대상의 독서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공공도서관계의 현실 또한 청

소년 독서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점검과 모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현실을 고려해서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대상 독서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였다. 공공도서관 독서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의 과제 및 지향을 모색하였다.

## 1.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대상의 독서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독서교실과 독서회활동에 중점을 두고 현황을 파악하였다. 독서교실과 독서회 활동에 대한 현황은 우선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독서교실 및 독서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을 조사하였다. 이후 해당 도서관에 직접 전화하여 담당사서의 이메일 주소를 파악한 뒤, 2007년 8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보름동안에 걸쳐 E-mail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 수거하였다. 그 결과,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10곳의 공공도서관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10곳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독서회를 운영하고 있는 34곳의 공공도서관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32곳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사실적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서들의 진술을 그대로 옮기고 이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향후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의 과제 및 개발방향과 관련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년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의 운영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 2.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현황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독서진흥과 관련된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독서회 활동이 있다. 둘째, 방학기간을 이용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독서교실 프로그램이 있다. 셋째, 일회성 사업의 성격을 가진 활동으로서 주로 도서관주간이나 독서주간에 실시되는 독후감대회, 독서퀴즈대회, 강연회, 독서토론대회 등의 활동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되는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이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현황은 2007년 7월 한 달 동안 국립중앙도서관홈페이지(<http://www.nl.go.kr>)의 관련 사이트에 있는 국내의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사하였다. 각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도서관이 청소년(중고생) 관련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대상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은 총 7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독서교실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은 10곳, 독서회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34

곳, 이외 독서관련 일회성 행사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19곳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4곳의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대상의 논술강좌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4곳의 도서관에서 중학생 영어회화, 생활과학교실, 한자교실, 블로그제대로 알기, 댄스, 만화, 아나운서, 경제배우기, 청소년미래탐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외 청소년대상의 독서치료, 독서클리닉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대상의 독서교실과 독서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과 현황을 파악하였다.

### 2.1 독서교실

#### 2.1.1 운영시기와 교육대상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은 국민독서생활화와 평생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문교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의 후원으로 197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기간동안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국의 주요 공공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sup>1)</sup> 현재 초등학교 대상의 방학 독서교실은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청소년대상의 독서교실은 현재 10곳의 공공도서관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아래 <표 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남산도서관, 종로도서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춘천시립도서관, 문경시립중앙도서관, 울산남부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울주도서관, 진주시립서부도서관, 대구새빛도서관

1) 1971년 1월 제1회를 시작으로 1973년 제 6회까지는 국립중앙도서관 단독으로 실시되었다. 1974년 제7회부터는 전국 공공도서관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에서 청소년 대상의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대상의 독서교실의 역사가 긴 데 비해서 청소년대상의 독서교실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국립공공도서관의 경우 청소년 독서교실은 대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춘천도서관은 2006년부터, 진주서부도서관은 2007년 처음 실시되었다. 사립공공도서관인 새벗도서관은 1989년부터 2007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sup>2)</sup>

공공도서관 독서교실의 운영기간은 1-2일간 5-6시간씩 혹은 3-5일간 3-5시간씩 단기적이며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구새벗도서관은 6주간 주 1회 매회 2시간씩 실시되고 있었다.

청소년 독서교실 참여대상자는 중학생에 한정되어 있었다. 참여대상자의 모집방법은 대부분 학교장 추천과 선착순을 병행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모집은 주로 학교장 추천에 의해 모

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춘천도서관과 새벗도서관의 경우 전적으로 학생들의 신청에 의해 모집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수는 적게는 20여명, 많게는 90여명에 이르기까지 도서관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 2.1.2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2007년도 '전국 독서교실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독서교실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과 습관을 갖게 하고, 올바른 독서태도를 길러 독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며, 도서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프로그램에서는 <독서력 개발>, <도서관이용>, <기타 향토문화교실>, <레크레이션>, <문화체험> 등을 주된 내용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기를 권고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06).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대

<표 1> 독서교실 실시 도서관 현황(2007년 8월 현재)

도서관명	최초실시연도	대상자(대상자수)	모집방법	운영기간
남산	?	중 1(95명)	학교장 추천	5일간, 매일 3시간 20
종로	?	중 1(40명)	학교장 추천 + 선착순	5일간, 매일 5시간
경기중앙	1997	중 1-3(40명)	학교장 추천	4일간, 매일 5시간
춘천	2006	중 1-2(20명)	선착순	3일간, 매일 3시간 30분
문경중앙	1999	중 1-2(50명)	학교장 추천 + 선착순	4일간, 매일 3시간 20분
울산남부	2003	중 1-2(18명)	학교장 추천 + 선착순	1일간, 5시간
울산중부	2003	중 1-2(30명)	학교장 추천	2일간, 6시간
울주	2004	중 1-2(30명)	학교장 추천 + 선착순	1일간, 5시간
진주서부	2007	중 1-2(20명)	학교장 추천 + 선착순	4일간, 매일 3시간 10분씩
대구새벗	1989	중 1-3(30명)	선착순	주1회, 6주간 매회 2시간씩

2) 남산도서관과 종로도서관의 경우 청소년 대상의 독서교실이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없었다.

〈표 2〉 독서교실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도서관명	교육내용(시수)	교육방법
남산	개교식/도서관이용법 및 안내(1)/ 추천도서읽기(1)/ 독서치료체험교실(1)/ 독서법(1)/ 독서토론(1)/ 발표력·논리력·리더십향상법(1)/ 자료검색 및 실습(1)/ 영화감상(1)/ 독서능력개발과 논술문쓰기(1)/ 어떻게 보던 어떤 책을(1)/ 상황별 도서선택(1)/ 견학(1)/ 독후감쓰기(1)/ 설문조사 및 수료식	강의+체험활동
종로	개교식/ 모둠끼리 친해지기(1)/ 도서관이용법(1)/ 도서관이용실습(2)/ 자율독서(2)/ 월드비전긴급구호(2)/ 독후감상문 작성 및 독서토론법 강의(1)/ 독서와 논술 강의(2)/ 한 책 읽고 독후활동-모둠활동(2)/ 모둠작품 자랑-모둠활동(2)/ 한 책 속 보석글 뽑아 꾸미기-모둠활동(2)/ 나의 꿈 찾기(2)/ 독서골든벨(2)/ 설문조사 및 수료식	강의+체험활동+조별진행
경기중앙	개교식/ 책읽기(2)/ 비판적책읽기 강의(2)/ 논술 및 구술면접의 실제(2)/ 독서논술따라잡기(2)/ 영화로 읽는 문학읽기(2)/ 독서전략을 통한 독서능력키우기(2)/ 매체를 활용한 논술(2)/ 세계문화유산 화성(2)/ 독후감발표 및 평가(1)/ 수료식	강의
춘천	책의 역사: 동서양의 장정(1)/ 북아트(3)/ 독서논술(1,1/2)/ 도서관현장체험(2, 1/2), 팝송배우기(1)/ 글쓰기(1)	강의+체험활동
문경중앙	도서관소개 및 도서관이용법(1)/ 풍선아트(1)/ 도서선택법(2)/ 자유독서(3)/ 독서감상문작성법(2)/ 레크레이션(2)/ 논술작성법(2)/ NIE(2)/ 향토교실(2)/ 수료식 및 설문조사	강의+체험활동
울산중부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1)/ 개성 있는 글쓰기 표현법(2)/ NIE(2)/ 도서관활용법(1)/ 시읽기를 통한 마음읽기(2)/ 좋은 책 선택법(2)	강의
울산남부	개교식/ 시와 함께 생각나누기(2)/ 소설 속 길을 걷다-독서신문만들기(2)/ 독서와 함께 자아탐험-독서토론(2)/ 수료식	강의
울주	개교식/ 도서관이용법(1)/ 책종류별 독서방법(1)/ 독서토론과 논술 익히기(1)/ 독후감상문 및 원고지 쓰는 법(1)/ 독후만화그리기(1)/ 책만들기, 동화 거꾸로 읽기, 책 광고만들기, 영화 vs 책(2)/ 수료식	강의+체험활동
진주서부	개교식/ 도서관이용법(1)/ 심진분류법이해(1)/ 장서인 만들기(1)/ 80일간의 세계일주(3)/ 영화로 만나는 80일간의 세계일주(3)/ 신문의 이해(3)/ 수료식	강의+체험활동
대구새벗	책읽고 이야기나누기(12)	토론식

상의 독서교실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대개 국립중앙도서관의 운영계획안에 따라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sup>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표 2 참고), 먼저, 〈독서력 개발〉과 관련해서는 도서선택법, 글쓰기, 독서법, 책읽기를 주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었으나, 최근 우리 교육현장의 논술독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반영한 듯 ‘논술’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도서관이 많았다. 남산도서관의 경우 발표력·논리력·리더십 향상법, 독서능력개발과 논술문쓰기를,

종로도서관은 독서와 논술,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논술 및 구술면접의 실제, 독서논술따라잡기, 독서전략을 통한 독서능력 키우기, 매체를 활용한 논술을 주요 강좌로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문경시립중앙도서관은 논술작성법을, 울주도서관은 독서토론과 논술익히기 등 독서력개발 및 논술에 관련한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도서관이용 및 자료검색〉은 경기중앙도서관, 울산남부도서관, 대구새벗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이외에

3) 2007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도 <레크레이션과 문화체험>과 관련한 교육으로 영화감상, 장서인 만들기, 북아트, 풍선아트, 팝송배우기, NIE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향토문화>와 관련한 교육은 유일하게 문경시립중앙도서관에서만 실시하고 있었다.

독서교실의 독서지도방법으로는 강의와 학생들의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주로 논술, 독서법, 자료선택법 관련 교육내용은 강의를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문화체험 및 레크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참여자들의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대구새벗도서관의 경우 독서교실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책읽기와 읽은 후 이야기하기를 비롯한 토론하기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도서관과 교육내용적인 측면에서나 진행방법의 측면에서 차별적이다. 그리고 종로도서관은 참여자들을 조별로 구성하여 조별로 다양한 독후활동을 체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 2.1.3 교육주체

현재 청소년 대상의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담

당하는 교육주체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독서교실을 담당하는 사서는 독서교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담당사서들은 도서관에서 매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표 3>을 보면, 청소년 독서교실 담당사서는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기획을 맡고 있는 사서들(5명)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종합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서가 담당하는 도서관(3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 수서담당사서가 맡기도 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사서가 수행하고 있기도 하였다.

담당사서의 근무경력 또한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7곳의 도서관에서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사서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세 곳의 도서관에서는 2-3년의 경력을 가진 사서가 담당하고 있었다. 담당사서들의 독서교육 관련 연수경험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 조사된다. 8명의 사서가 독서교육과 관련한 연수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2명의 사서만이 사설기관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독서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표 3> 독서교실 담당사서의 주요경력

도서관명	담당사서의 주요업무	담당사서의 근무연수	담당사서의 독서교육연수경험유무
남산	문화행사 기획	17년	있음(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자격)
종로	문화행사 기획, 서무	2년	없음
경기중앙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12년	없음
춘천	문화행사 및 도서정리	14년	있음(독서논술지도자과정 이수)
문경중앙	행정	10년	없음
울산남부	종합자료실	18년	없음
울산중부	종합자료실	10년	없음
울주	종합자료실	3년	없음
진주서부	문화행사 및 어린이실	3년	없음
대구새벗	수서	18년	없음

중 한 명은 독서지도사 자격과 독서치료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실제 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과정에는 담당사서 외에 다양한 인력들이 교육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서관 내부의 사서인력이 참여하거나 도서관외부의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었다. 내부 사서인력의 참여현황을 보면, 남산, 종로, 경기중앙, 춘천, 진주서부도서관에서는 도서관내 복수의 사서인력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그 외 도서관은 독서교실 담당사서 1인만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담당사서는 주로 독서교실 프로그램의 기획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도서관이용법, 책선택법, 독후감쓰기 등과 관련한 강좌에서는 대개 사서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참고).

또한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도서관내부의 사서인력들이 참여하는 반면

에 외부의 많은 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2007년도 '전국독서교실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담당하는 교육주체 문제와 관련하여 "당해 도서관 사서가 하되, 관계전문가 또는 학교교사를 초빙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 담당 주체들의 구성현황을 보면 이와 같은 권고에 충실하고 있다. 진주서부도서관과 대구 새빛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도서관에서 외부강사들을 활용하여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청소년 독서교실에서 외부 강사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5 참조). 주로 독서논술관련 프로그램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NIE, 북아트 등의 레크레이션 및 문화체험프로그램도 외부강사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사들은 주로 각종 문화센터에서 독서논술 및 글

〈표 4〉 독서교실 담당 사서수와 사서의 역할

도서관명	참여 사서수	사서의 역할
남산	6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진행(도서관이용법 및 안내, 자료검색 및 실습, 독서치료체험교실, 독서법, 독서토론, 상황별도서선택, 글쓰기)
종로	2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진행(도서관이용법, 도서관이용실습, 한 책 읽고 독서토론, 모둠활동, 독서골든벨)
경기중앙	2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진행(독후감 발표 및 평가)
춘천	3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진행(독서논술, 도서관현장체험, 책의 역사)
문경중앙	1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진행(도서관 소개 및 도서관이용법)
울산남부	1	프로그램 기획
울산중부	1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진행(도서관활용법)
울주	1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진행(책종류별독서방법, 독후감상문 및 원고지쓰는 법)
진주서부	3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진행(도서관이용법, 심진분류법이해, 장서인 만들기, 80일간의 세계일주, 영화로 만나는 80일간의 세계일주, 신문의 이해)
대구새빛	1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표 5〉 외부강사 담당강좌 현황과 외부강사의 주요이력

도서관명	외부 강사수	담당 강좌명	이력
남산	4	발표력·논리력·리더십향상법, 편 레크리에이션, 독서능력개발과 논술문쓰기, 어떻게 보던 어떤 책을	동화구연활동가, 한국심성교육개발원 독서치료사, 웃음치료강사, 독서법 저자
종로	3	독후감작성 및 토론법, 독서와 논술,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의 행복한 나눔 이야기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에서 미디어 및 논술관련 강의경력자
경기중앙	7	비판적 책읽기, 논술 및 구술면접의 실제, 독서논술따라잡기, 영화로 읽는 문학읽기, 독서전략을 통한 독서능력키우기, 매체를 활용한 논술, 세계문화유산 화성	대학 국문학 강사, 신문사 논술위원, 독서교육연구회 연구원, 한국심성교육개발원 연구원, '교과서 논술' 집필저자, 평생교육원강사, 한국사 전공 교수
춘천	2	북아트, 글쓰기	북아트지도자, 문화센터 강의경력자
문경중앙	6	NIE, 논술작성법, 독서감상문 작성법, 풍선아트, 향토교실, 레크리에이션	현직교사, 전직교사, 학원 논술, 독서지도 강사, 이벤트회사 직원, 향토연구사, 청소년생활지도사
울산남부	3	시와 함께 생각나누기, 소설 속 길을 걷다독서신문만들기, 독서와 함께 자아탐험-독서토론	문화센터, 방과후 교실 등의 글짓기지도 강사, 독서논술 강사
울산중부	4	개성 있는 글쓰기 표현법, NIE, 시읽기를 통한 마음읽기, 좋은 책 선택법	글짓기지도강사, 독서치료강의경력자
울주	2	독서토론과 논술 익히기, 독후만화그리기, 책만들기, 동화 거꾸로 읽기, 책 광고 만들기, 영화 vs 책	문화센터 독서논술, 글짓기지도 강의 경력자
진주서부	0		
대구새벗	0		

쓰기 강의이력이나 레크리에이션 관련 강의 및 활동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외에도 교사나 대학강사, 교수들도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에서도 외부강사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사서의 독서교육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문제를 전문외부강사가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독서교실 운영 전반을 사서가 담당하기에는 사서들의 업무강도가 너무 강하기에 인력지원책 측면에서도 외부강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양질의 전문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도서관에서 외부강사를 활용하

는 주요한 동기가 되고 있었다.

#### 2.1.4 프로그램 평가 및 사후관리

독서교실 프로그램 실시 이후는 진주서부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참여대상자들에게도 독서교실의 만족도에 대해 설문형식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을 사후관리적 차원에서 주로 독서회활동 참여를 권유하고 있었다. 남산, 종로, 울산남부, 울산중부도서관에서 독서회가입을 권유하고 있었으나 실제 참여율은 저조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대구 새벗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내 다양한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고 있었다.

## 2.2 독서회

독서회는 소집단에서 직접 책을 선정하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책을 읽은 뒤, 정기적으로 토의를 하는 모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독서회는 '도서관 발생 초기부터 있어 온' 것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서관 내의 자발적인 독서활동의 하나라 할 수 있다(김승환 1999). 현재 공공도서관에는 어린이,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 주부, 직장인, 노인, 아버지 등 다양한 연령별 계층별 독서회가 존재한다.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독서회 현황은 국내의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독서회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모두 34곳으로 나타났다(표 6 참고). 독서회 현황은 청소년 독서회가 있는 34곳의 공공도서관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된 32부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 2.2.1 독서회 유형 및 회원모집 방법

청소년 대상의 독서회는 보통 중학생독서회와 고등학생독서회로 구분되고 있으나 이 중 중학생독서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31곳의 도서관에 중학생독서회가 활동하고 있었으며, 고등학생독서회는 9곳의 도서관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독서회는 보통 10-15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독서회 회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되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모집하기도 하고(22곳), 도서관의 각종 문화활동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사후에 모집하기도 한다(4곳). 또한 중고등학교에 직접 의뢰하여 청소년들을 추천받기도 한다(7곳).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조직하는 곳도 있다(5곳). 적은 수지만 기타 도서관홈페이지나 도서관계시판을 통해 광고하면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난

〈표 6〉 독서회 운영 공공도서관 현황

독서회 운영 공공도서관		
서울종로도서관	대구중앙도서관	부산중앙도서관
서울남산도서관	대구북부도서관	김해장유도서관
서울서대문도서관	대구두류도서관	경남함양도서관
서울영등포평생학습관	대구서부도서관	경남창녕도서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부산시상도서관	창원시립도서관
속초평생학습관	부산영도도서관	창원도서관
대전신탄진도서관	부산구포도서관	마산도서관
대전안산도서관	부산남구도서관	진해동부도서관
대전평생학습관	부산반송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대전한밭도서관	부산서동도서관	울산남부도서관
김천시립도서관	부산시민도서관	울산동부도서관
		울주도서관
총 34곳		

〈표 7〉 회원 모집방법 〈복수응답〉

구 분	도서관수	비율(%)
도서관 이용자 대상 모집	22	55.0
문화활동 및 행사 참가자를 대상 모집	4	10.0
중고등학교에 의뢰	7	17.5
중고등학생 스스로가 조직	5	12.5
기타	2	5.0
계	40	100.0

다(2곳). 이 중 도서관에 오는 도서관이용자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모집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22곳(55%)의 공공도서관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 2.2.2 독서회 활동계획 주체 및 지도

독서회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도서관이 직접 계획하거나, 도서관과 독서회가 함께 절충하여 계획하고 있었다. 각각 13곳의 도서관이 이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 독서회 회원 스스로가 계획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4곳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독서회를 지도하는 학교교사나 자원봉사자와 같은 외부 인력들이 계획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었다(2곳).

성인 독서회는 전적으로 자발적 운영 체제를 가지는 반면에 청소년 대상의 독서회는 대개 지도를 받고 있는 편이었다. 주로 독서회 담당 사서가 직접 지도하거나(17곳), 외부의 지도협력자에 의해 지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0곳). 독서회 스스로 운영하는 도서관도 5곳으로 나타난다.

한편, 독서회를 담당하는 사서들은 대개 도서관의 열람업무(21곳), 도서관행사기획(5곳), 어린이실(3곳), 기타 자료조직 및 수서 등(2곳), 독서진흥업무(1곳)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독서회는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동기 뿐 아니라 담당사서의 역할에 따라 독서회의 활성화가 많이 좌우되고 있었다. 독서회 담당사서는 독서회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담당사서는 주로 독서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독서회 운영과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독서회를 직접 지도하는 사서들의 경우 독서회에서 읽을 주제 및 목록을 개발하고, 독서회 토론을 주도하며 토론과 관련한 자료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독서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로 활동하고 있었다.

### 2.2.3 독서회 운영방식

독서회는 보통 정해진 책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도서관 청소년독서회에서도 주로 책을 읽고 독후감 쓰기와 발표를 위주로 하여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담당사서가 보다 적극적인 도서관에서는 사서가 직접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신문기사나 사설을 준비해서 참여자들에게 제공한 뒤 함께 읽고 토론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책뿐만 아니라 영화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함께 보고 토론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한편, 독서회가 보다 활발한 도서관은 독서회활동의 결과물을 신문으로 발행하거나 문집이나 회지 형태로 발행하는 곳도 있었으며, 독서회의 독서토론을 공개독서토론회의 형식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또한 독서회가 주체가 되어 시낭송대회나 시화전을 개최하거나 문학의 밤 등 각종 행사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독서회의 활동주기를 살펴보면, 활동주기는 그 독서회가 얼마나 활발한가에 따라 결정되고 있었다. 대개 독서회의 활동은 한 달에 1회 개최되고 있었다. 26곳의 도서관에서 이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 이외 활발한 독서회는 월 2회 개최되고 있었으며(4곳), 월 4회 매주 활동하는 도서관도 있었다(1곳). 반면, 2개월에 1번 활동하는 도서관(1곳)도 있었다.

독서회 운영 및 활동에 관련한 비용은 대체로 도서관의 예산에 의해 지원되고 있었다. 23곳의 도서관에서 독서회 활동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자체 예산을 할당하고 있었다. 4곳의 도서관에서는 독서회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외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도서관도 2곳 있었다. 기타 2곳의 도서관에서 도서관예산과 회원회비가 절충되거나, 도서관예산과 도서관상조회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독서회 활동 관련 예산이 없는 도서관도 있었다.

### 3. 공공도서관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의 문제점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독서진흥과 관련된 활동 및 프로그램은 현재 어린이대상의 독서프로

그램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은 청소년 독서회, 방학독서교실을 위주로 구성하고 있으며, 도서관주간이나 독서주간에 실시되는 독후감대회, 독서퀴즈대회, 강연회, 독서토론회 등의 일회성 독서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문화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되는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기타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특정 도서관에서 청소년독서치료, 독서클리닉, 도서관학교, 독서친구 맺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린이대상의 독서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의 핵심적 서비스로 정착한지 오래이나 청소년독서교실을 비롯한 청소년 대상의 독서프로그램은 그 역사가 짧고, 실행하고 있는 도서관 수도 적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청소년서비스가 어린이서비스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는 실정을 고려하면,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 대상의 독서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도서관이 주도하는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이 사회적 가치를 확보할 뿐 아니라 많은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 대상 서비스가 확대 적용되고, 나아가 많은 청소년들이 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에 보다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등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독서프로그램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분명 존재한다.

#### 3.1 도서관 독서교육의 정체성 미흡

먼저,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현장의 눈물독서에 대한 지대

한 관심을 반영한 듯 독서능력개발을 비롯한 논술독서와 관련한 독서교육이 주된 흐름으로 나타난다.

청소년대상의 독서교실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보면, 독서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도서선택법, 글쓰기, 독서법, 책읽기를 주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었으나, 독서능력개발을 비롯한 논술독서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도서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발표력·논리력·리더십 향상법, 독서능력개발과 논술문쓰기, 독서와 논술, 논술 및 구술면접의 실제, 독서논술따라잡기, 독서전략을 통한 독서능력 키우기, 매체를 활용한 논술 논술작성법, 독서토론과 논술익히기 등이 그와 관련한 강좌들이다.

‘독서논술’ 관련 강좌는 독서교실 프로그램 뿐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대상 문화프로그램에서도 개설되는 주 강좌인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독서논술관련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34개의 공공도서관으로 조사된다. 이러한 강좌는 대개 외부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 외부강사들은 사설학원이나 문화센터, 대학 평생교육원 등의 독서논술 및 글짓기 지도 강사들이 주를 이룬다.

도서관의 이러한 분위기와 현상은 학교 독서교육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미 수학능력시험과 논술이 시행되면서 ‘독서’가 주요한 입시전략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듯 독서·논술·토론이라는 이름을 단 사설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이며 ‘독서논술’은 사설학원을 비롯한 각종 문화센터의 주요 인기 강좌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듯 최근 도서관의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에서도 독서

논술 관련 강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도서관의 독서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사실 현재 입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공교육에서의 독서교육이나 이러한 공교육의 입시방향에 발빠르게 부응하고 있는 사교육시장에서의 독서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먼저, 공교육과 사교육시장에서는 독서행위나 체험 그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독서능력은 학습능력’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학력신장의 방편으로 독서를 강조한다. 물론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습능력이 높아지기도 한다. 그러나 독서를 학력신장의 방편으로만 인식하고 이를 강조하는 것은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가치와 유의함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독서의 목적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진실과 감동을 만나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인격수양을 위해서 독서를 한다. 어떠한 목적에 입각해서 독서를 하느냐에 따라 독서의 양태는 달라진다. 또한 독서를 어떤 목적을 위한 활동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독서교육의 방향과 색깔도 완전히 달라진다(이연옥 2006). 학습을 전제로 하는 독서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사교육기관이나 공교육기관이든 텍스트를 분석하는 능력과 독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치중한다. 이와 같은 학력신장을 위한 독서교육, 논리력·분석력을 위한 독서교육은 학습과 공부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서교육과정에서는 독서를 통해 얻어지는 사색과 감

동, 인격수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책읽기의 기쁨과 즐거움도 반감된다. 독서가 평생의 습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더 더욱 힘든 일이다(이연옥 2006).

한편, 책읽기를 강제화한다는 점도 문제다. 독서는 모름지기 독자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자발적 의지에 의해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고 그러한 과정에서 책읽기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독서교육의 기본 방향은 책을 읽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이연옥 2006). 그러나 공교육의 독서교육이든 사교육의 독서교육이든 학생들의 자발적 책읽기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의 연장, 학습의 연장, 그리고 입시의 연장에서 책읽기를 강제화한다. 이처럼 입시와 학습의 수단으로 독서를 강조하고 강요하는 독서교육 내용과 방법으로는 진정 아이들로 하여금 독서의 즐거움과 흥미를 일깨우고 자발적으로 독서를 하게 하여 책과 더불어 생활하는 독서습관을 기르게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은 공교육의 학습형 독서교육의 내용과 방법, 사교육의 독서교육 내용과 방법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공공도서관에서 사교육 기관의 독서교육과 같이 책읽기 기술과 방법을 가르치거나 논술쓰기 방법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어교사처럼 문장의 이해, 문장의 분석, 글쓰기에 치중된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을 오랜 동안 맡아 온 한 고참 사서는 “내가 국어교사인가? 아니면 내가 학원의 논술교사인가”<sup>4)</sup>라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독서교육 내용과 방법이 혼재된 공공도서관 독서교육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독서와 관련한 사교육시장의 확대로 인해 도서관의 독서교육에 대한 가치는 점점 더 하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교육시장의 독서논술관련 강사들을 도서관의 강사로 초빙되고 있는 현 실정을 고려하면 사교육의 독서교육과는 크게 차별적이라 기대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부모들이나 청소년들의 눈에는 도서관의 독서교육이 사교육기관에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여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독서교실을 맡고 있는 한 사서는 독서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예전에는 독서프로그램이나 독서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이 도서관밖에 없었기에 독서교실을 비롯한 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도서관보다 더 나은 우수한 독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도 많고 학원도 많다 보니 독서교실 운영이 매우 어렵다. 학생들은 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이 학원보다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학생들 모집하기가 너무 힘들다. 전화돌리고 팩스보내고, 애걸복걸해도 겨우 1명 올까 말까 하는 정도이다. 그렇다고

4)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최 어린이사서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문학강좌(2006년 11월 3일)의 “선정도구개발을 통한 어린이자료 선정의 효율화모색”이란 주제의 강의에 참석한 한 사서의 이야기다.

도서관이 제한된 예산으로 특별한 외부강사를 초빙하기도 힘들다.”<sup>5)</sup>

도서관의 독서교육에 대한 이와 같은 진단은 사서들 내부에서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업적인 독서교육기관의 번창으로 도서관 독서교육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사설 독서교육 및 논술교육기관이 보편화됨에 따라 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 “도서관에서 사교육기관과 차별화된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sup>6)</sup>는 사서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이 처한 현재적 상황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교육기관과 차별화되지 않는 도서관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참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입시형 독서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도서관의 독서교육프로그램은 사교육기관보다 경쟁력이 한참 떨어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독서교육프로그램에는 사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와 학습을 연계한 독서력향상, 논술형 독서교육이 주를 이루는 형국이다. 물론 우리사회의 독서논술에 대한 관심,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관심을 도서관에서 반영한 것이라 하겠지만, 도서관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논술이나 독서능력을 보조하는 기관이 되어버리지는 않을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독서와 학습을 연계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독서교육의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이는 현재 공교육이나 사교육의 주요한 방향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이러한 독서교육의 방향에서는 ‘독서의 즐거움과 흥미 진작’, ‘독서의 자발성 증대’, 이를 통한 ‘평생의 독서습관형성’이라는 사회적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도서관은 독서교육과 관련한 학교정책 및 교육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나아가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의 방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도서관에서는 독서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

### 3.2 강의에 치중하는 독서교육

청소년대상의 독서프로그램은 독서에 대한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독서와 관련된 주요 프로그램 및 강좌를 보면, 외부강사에 의한 ‘강의’에 주로 의존하는 양태를 보인다. 강의식 독서교육은 특히나 도서관의 청소년대상의 독서교실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독서교실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청소년 대상 독서교실은 <독서력 개발>, <도서관이용>, <향토문화교실>, <레크레이션>, <문화체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특히 독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강좌에서는 외부강사에 의한 ‘강의’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

5) A도서관 독서교실 담당사서와의 전화면담.

6) 김수경(2006)의 사서면담 참고, p.78.

반적이다. 이에 비해 직접적으로 '책읽기 체험'을 유도하는 부분은 그 비중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대상의 문화프로그램에 개설된 독서논술강좌에서도 책읽기 및 글쓰기와 관련하여 강사의 강의식 독서교육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책읽기 경험을 비롯하여 독서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005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평일 하루 평균 47분 정도밖에 안 읽고 각종 인터넷, TV, 게임 등 영상오락 매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30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5). 따라서 책읽기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이와 상황을 고려한다면 도서관에서 책읽기 기술과 방법, 논술쓰기 기술과 방법을 가르치는 강의식 수업을 구성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스스로 책을 선택해서 읽을 수 있는 '자유독서' 혹은 '자율독서' 시간을 배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책을 읽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할 것이다.

### 3.3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의 저조

독서교실을 비롯한 청소년대상 독서프로그램의 참여자 모집방법은 도서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학교장 추천과 선착순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질적인 모집은 주로 학교장 추천에 의해 모집되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참가자들을 모집할 때 실질적으로 학교장 추천에 의존하는 것은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독서교실을 비롯한 청소년 독서프로그

램 담당사서들이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참가 학생들을 모집하는 일이고 지적한다. 담당사서들은 한결같이 "학생의 자발적 신청과 참여가 드물다"고 호소한다. 청소년의 자발적인 신청이 아니라 "부모의 권유나 학교 선생의 추천에 의하다보니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지 못하고 방관한다", "학생들의 결석률이 높거나 참여하여도 책을 읽어오지 않는다" 등의 프로그램의 참여도와 적극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

독서교실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독서회 또한 학습과 수업에 지나친 부담을 가진 청소년의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독서회활동은 학교, 학원, 시험에 비해 강제성과 우선순위가 떨어지기에 도서관에서 청소년대상의 독서회 활동을 꾸려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막상 청소년들이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한다하더라도 자발적인 참여라기보다는 독서와 논술의 중요성을 의식한 부모들의 권유와 강요에 의해 신청되다보니 실제 독서프로그램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사서들은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사서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원 보내는 심정으로 도서관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의 자발성이 떨어진다. 40여명 정도 신청하나 참석하는 사람은 대 여섯 명 정도다. 학원 가라 바쁘기도 하거니와 학생들이 독서회를 공부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다."<sup>7)</sup>

“가입동기가 학생들의 자발성이 아닌 부모님의 의지로 오는 학생이 많다 보니 선정된 책을 읽어 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 발표도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담당사서가 선정된 책을 소개하고 내용을 독서회원들에게 가르쳐 주고 회의를 이끌어 가는 방법이 대부분이다.”<sup>7)</sup>

입시와 독서를 연계하는 현 교육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도서관독서회 활동 또한 학습과 입시의 연장선상에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다보니 부모의 강요와 강제에 의한 가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 또한 독서프로그램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위기이다 보니 담당사서들은 한결같이 독서회 등 청소년대상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입시위주의 사회에서 학습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 사서의 진술에서도 청소년 대상 서비스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 계층 프로그램의 문제는 '계류'이예요. 다양한 이용자 계층 확보 측면에서 꼭 청소년 관련도서, 청소년 관련 잡지, 프로그램을 다 구비하는데, 막상 이용하는 것은 디지털자료실의 컴퓨터뿐이랍니다. 저희 연간불실에도 청소년 대상 잡지가 단 한명도 열어보지 못한

채 폐기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와요. 대출을 해 준대도 엄마들이 빌려갔다, 그냥와요, 시간 없어 못 보았다고요.”<sup>9)</sup>

학교와 학원, 과외 등의 학습에 청소년들은 늘 바쁘고, 그리고 시간이 난다하여도 도서관이나 책보다는 인터넷, 게임, TV, 영화 등 다른 오락적인 것들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도서관에서는 결국 청소년을 도서관으로, 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더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 3.4 독서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

독서회는 자발성에 기초한 독서조직으로서 청소년 독서회 활동은 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이 독서회가 가진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도서관독서회는 청소년 독서 활성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회 운영은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태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독서생활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기반조성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활동이다(한국문화예술킨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1).

7) 독서회설문지 답변, B도서관 독서회담당사서.

8) 독서회설문지 답변, C도서관 독서회담당사서.

9) S도서관 K사서 이메일 면담

그러나 도서관독서회의 역사에 비해 그 활동이 미미하고, 도서관독서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나 청소년독서회는 그 활동이 미흡한 상황이다. 앞서 독서회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공공도서관의 청소년대상의 독서회는 564개의 공공도서관 중에서 34곳의 공공도서관에만 존재할 뿐이다. 이들 독서회마저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과정에서도 “예전에는 청소년대상 독서회가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졌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많았다. 청소년 독서회의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공공도서관이 청소년의 독서활동을 진작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독서단위인 독서회를 활성화하는 데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독서회 활동의 현재적 문제를 비롯하여 독서회 활성화를 위한 고민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우선, 독서회는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집단적 독서활동이지만 청소년대상의 독서회는 독서회 운영에 있어서 담당사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나마 독서회활동이 활발한 도서관은 담당사서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수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현실은 담당사서가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독서회 운영과 관련한 장소나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도서관이 많았다. 또한 사서들은 독서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공간과 예산은 독서회 활동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임에

도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담당사서들은 스스로가 독서지도와 관련한 전문성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과중한 업무로 독서회를 운영할 충분한 여건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담당사서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자.

“아이들 스스로 토론하기에는 너무 미흡에서 담당사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나 스스로도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해오는 것이 아니라 인사이동이 있으면 또 할지 안할지 모르는 실정이라, 지속적인 연계성이 부족하며, 독서지도에 관한 공부나 연구가 미흡한 게 사실이다. 또한 다른 업무도 하다보면 여기만 집중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sup>10)</sup>

독서회운영을 비롯한 청소년 독서교육과 관련한 담당사서들의 교육경험의 부재,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순환근무제로 인한 독서회관련 업무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점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일선 사서들이 처한 공통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공공도서관의 청소년독서회는 다소 형식적인 모임으로 이어지고 있고,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의 저조 속에서 독서회가 사라지는 도서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3.5 사서의 전문성과 주도성 부족

앞서 청소년 독서교실의 담당사서의 현황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담당사서들의 독서교육

10) 독서회설문지 답변, D도서관 독서회담당사서.

관련 교육경험이 대부분 부재하다. 10명 중 8명의 사서가 독서교육과 관련한 연수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2명의 사서만이 사설기관의 독서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담당사서가 독서교육에 대한 경험이 부재하다보니 독서교실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담당사서들은 한결같이 독서교육과 관련한 전문성 개발 및 재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독서회 담당 사서들도 이와 관련된 문제를 공동으로 제기하였다. 사실 이는 청소년독서교실 및 독서회 담당사서 뿐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독서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사서들의 오래된 문제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발행한 2004, 2005 전국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사례집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서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독서교실 담당교사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 독서교실 담당교사가 되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독서교실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야 하는가’였다.”<sup>11)</sup>

“독서교실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주제 면이나 수업 내용면에 있어서 무엇인가 자신에 대한 부족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자신의 역량의 부족일 수도 있으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더 맞는 이유일 것이다. 이는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교육이 그다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사서도 타 선생님들처럼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받아야 아이들에게 더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sup>12)</sup>

이처럼 사서들은 독서교실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의 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관련 업무의 개발과 운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서들은 독서교육에 대한 전문성부재를 외부강사의 전문성으로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사서들은 사서의 인력지원 측면 뿐 아니라 사서의 독서교육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문제를 전문외부강사가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강사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독서교실에서 사서들은 주로 프로그램기획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실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서관이용법, 책선택법, 독후감쓰기 등과 관련한 강좌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반면 독서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강좌는 대부분 외부강사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서는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주로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 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에 독서교육의 내용개발과 지도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스스로 독서전문가라기 보다는 행정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운영에서 외부강사

11) 국립중앙도서관, 2004년 전국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사례집에 소개된 사서의견.

12) 국립중앙도서관, 2005년 전국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사례집에 소개된 사서의견.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서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의 설문에 참여한 담당사서들 또한 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에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 또한 현장도서관의 실무진급뿐 아니라 관리자급에서도 발견된다.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수많은 행사 가운데 가장 본연의 행사이며 외부에서도 도서관을 가장 도서관답게 인정하는 독서교실, 이제 사서들이 그 방면으로 최고의 독서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독서치료사다 뭐다, 기타 영리·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서관련 단체 등에 많은 부분 우리 자리를 내어 주었던 게 사실이다. 사서 스스로도 항상 외부강사 등에 의존해 자기발전의 기회를 놓쳤고, 독서전문가로서의 전문인의 길을 포기해왔다. 이제라도 독서전문가 사서로서 제자리를 찾고 독서교실의 위상을 높여야 할 때라고 본다.”<sup>13)</sup>

“독서교육프로그램에서 담당사서 진행 프로그램과 외부강사 진행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독서교육을 민간부분에 위탁하다시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 사서의 독서교육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준비정도를 말해주는 것으로 7·80년대 여름·겨울 독서교실을 교사에게 위탁하는 수준은 벗어났지만 아직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가 독서교육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거나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독서교육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 미래를 어렵게 한다.(김경자 2005)”

위의 사서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독서교육이 사서의 핵심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구조는 도서관이 독서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외부강사의 협조와 지원은 필요하나 독서교육프로그램 기획은 물론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사서가 주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학교교사가 스스로 교육적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 여기더라도 자신의 수업을 다른 이에게 위탁할 줄 아는 상황을 고려하면, 도서관의 핵심업무라 할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을 외부강사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담당사서는 독서교육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기획 뿐 아니라 실행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공공도서관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의 과제와 운영방향

##### 4.1 도서관의 본질, 독서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이해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서관의 의미와 본질, 도서관 독서교육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성격과 특징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서관의 본질과 의미를 살펴본 뒤, 공공도서관

13) 국립중앙도서관, 2004년 전국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사례집에 소개된 사서의견.

의 독서교육, 독서프로그램의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에 입각한 독서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하고자 한다.

도서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훌륭한 독서교육의 장이 된다. 도서관이 제공하는 책을 통해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정신적 정서적 체험을 하게 되고, 감성이나 상상력을 기르게 된다. 청소년들은 도서관을 통해 책의 세계를 알고, '책읽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됨으로써 '독서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자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책을 스스로 선택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수많은 책 속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책을 찾고 그 책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찾아 정보로 활용할 줄 알게 된다.

바로 도서관은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독서활동'을 통해 스스로 책을 찾고 정보를 찾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게 하여 청소년들의 '현재적 학습' 및 '평생학습'을 자연스럽게 돕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직접 청소년들을 위해 좋은 책을 안내, 전시하거나 북토크, 방학 독서교실,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책과 독서로 유인한다.

이처럼 도서관은 독서의 즐거움과 흥미를 자극하고 자발적 독서를 유도하여 청소년의 독서 체험을 풍부히 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도서관이 가지는 이와 같은 성격과 특징은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교육프로그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한다. 즉 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독서흥미를 유발하여,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독서를 하게 하고, 이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얻어가게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도서관에서, 도서관의 독서교육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이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되면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되고 도서관을 찾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프로그램은 공부의 연장이나 학습의 연장이 아니라 즐거운 체험의 연장이라는 기본입장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책읽기 그 자체의 체험을 유도하고 풍부히 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게 하는 방법이나 기술, 그리고 책을 읽고 난 뒤에 그 내용을 충실하게 기억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독서 '학습'에 치중하고, 이를 강의자가 가르치려 한다는 데서 도서관의 독서교육이 학습의 연장, 교실의 연장, 학원수업의 연장이라는 인상을 받게 한다. 도서관에서는 참여자들을 독서와 관련하여 가르치려 할 것 아니라 참여를 통해서 책읽기가 즐거움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서관은 경쟁과 평가에서 매우 자유로운 곳이다. 공교육에서 과잉경쟁과 과잉학습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도서관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모든 사람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학습과 경쟁으로 인해 초래되는 공교육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올해의 뉴욕의 교사상을 수상한 바 있는 존 테일러 개토의 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토는 도서관이 공교육이 가지는 폐해를 완화하고 개선하는 대안적 사회 기관이라는 데 주목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박물관이나 도서관은 다른 식으로 움직인다. 도서관사서와 학교교사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라. 사서는 진짜 책과 진짜 독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교사는 교과서와 계약된 독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 차이 속에 진짜 교육과 학교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밝혀주는 로제타석이 있다. 도서관에서는 연령별로 격리된 아이들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 어떤 이유에선지 도서관은 독자들을 나이별 또는 독서능력이라는 수상쩍은 기준으로 격리하지 않는다. ...사서는 무엇을 읽어야, 어떤 순서로 읽어야 말하지 않고, 또 나의 독서에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 사서들은 그들의 고객을 신뢰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사서는 내가 나 자신의 질문을 하도록 허용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도서관이 나에게 필요한 때라고 결정할 때에 도와주지 않는다. 만일 내가 한 장소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도서관은 일정한 간격으로 종을 울려서 책읽기를 중단하라고 종용하지 않는다. 도서관은 또 내집을 기웃거리고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도서관은 나의 부모에게 도서관에서의 내행동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지 않는다. 도서관 밖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라고 추천을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 ...공공도서관은 학교처럼 공공연히 창피를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 좋은 독자와 나쁜 독자들을 등급을 매겨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써 붙이지 않는다. 적어도 뉴욕시에서, 도서관과 학교의 가장 이상스러운 차이점은 도서관에서는 나쁜 행동을 하거나 충을 휘두르는 아이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나쁜 아이들도 도서관을 존중하는 것 같다. 이 흥미로운 현상은 도서관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보여주는

존경심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일지 모른다. 진정한 책은 ‘교육’을 하고 학교교과서는 ‘훈련’을 시킨다. 따라서 도서관들과 도서관 정책들은 학교교육의 개혁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교육에서 자유로운 의지와 고독을 빼버리면 그것은 훈련이 되고 만다(존 테일러 개토 2006).”

개토의 글에서 우리는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뿐 아니라 도서관의 독서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개토는 도서관에서의 교육이 학교교육과 어떻게 다른지, 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를 잘 지적해주고 있다. 개토가 지적하듯이 도서관에서는 자유롭고, 주체적이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는 도서관의 주요한 특성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독서의 근본적인 성격과도 잘 부합한다. 따라서 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도서관의 특성, 가치, 그리고 그 본질과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게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서관의 독서교육프로그램에서 도서관의 성격과 특성, 가치가 충실하게 반영될 때, 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은 독서‘훈련’이 아니라 진정한 독서‘교육’프로그램으로서 가치를 발하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도서관의 가치, 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의 가치와 가능성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 4.2 청소년들의 상황과 여건에 대한 고려

이에 더해,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할 때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현실적 여건 또한 커다란 변수가 된다. 현재 우

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체제로 인해 학습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수업과 과제해결 그리고 학원, 과외 등으로 늘 바쁘고, 간혹 시간이 난다하여도 도서관이나 책보다는 인터넷, 게임, TV, 영화 등 다른 오락적인 것들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청소년 위원회가 2006년 4월 발표한 청소년 하루 생활 시간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에서 독서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평일 여가시간을 보면 TV시청이 46분, 컴퓨터게임 31분, 교제활동 33분, 개인놀이 11분, 인터넷정보검색 9분, 독서가 9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휴일에는 TV시청이 167분, 컴퓨터게임이 96분, 인터넷정보검색 23분, 교제활동 16분, 종교집회활동 20분, 개인놀이 12분, 독서는 22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중고등학생의 독서시간은 평일 9분, 휴일 22분인 것으로 조사된다. TV 및 인터넷 등에 활용하는 시간이 평일 대략 1시간, 휴일 4시간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평소 독서에 두는 비중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전체 여가에서 독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 청소년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 이유로는 '책읽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과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노명완 2005).

이와 같은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은 청소년대상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의 기획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우선 '책읽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청소년들을 고려하여, 도서관이, 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책읽기의 재미와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재미있는 것은 많이 하고, 또 잘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도서관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책읽기의 재미와 즐거움을 체험하게 된다면 도서관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서관에서는 청소년들의 흥미를 포착하고 그러한 흥미에서부터 독서 및 도서관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 이로 인한 책읽기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의 현실도 적극 반영하여 도서관에서는 책읽기 그 자체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내용이지만 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학교에선(책을 읽을) 그런 시간을 제공하지도 않아요. 애들이 독서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뭘 읽는다 해도 대충 요약문이나 보고, 그걸로 독후감 숙제를 간단하게 쓰는 식인데, 애들이 일단 책을 읽으려면 책을 읽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sup>14)</sup>

청소년들이 처한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공공도서관에서는 현재 공공도서관의 관행으로 보이는 강사의 강의중심의 프로그램을 기

14) “좌담: 청소년이 보는 청소년문학,” 창비어린이, 15(2006 겨울), p.24. 김훈(고등학교 1학년생).

획하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을 선택해서 읽을 수 있는 '자유독서' 혹은 '자율독서' 시간을 배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책을 읽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 4.3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 유도

우리나라와 같이 입시위주의 사회에서 학습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할 때는 청소년들의 참여문제를 적극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현재 도서관에서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참가학생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성이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의 도서관프로그램 기획 시에는 청소년을 도서관으로, 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더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의 행사와 사업은 기획과 실행과정에서 학교 및 청소년관련 단체와의 연계와 협력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관내 프로그램이든, 도서관에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든 학교와 관련단체가 협력활동을 수행한다면 청소년 프로그램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와의 연대를 보다 적극적이며 세밀히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의 방과후활동이나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한다면 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서교실프로그램 뿐 아니라 '청소년의 책과의 만

남'을 위해서는 도서관이 이와 관련된 지역의 전 기관 및 시설이 연계하여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들의 참여문제 관련해서는 미국 청소년서비스의 사례에서도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청소년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또한 도서관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미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용 프로그램 기획 시부터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길 권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기도 하고, 자원활동가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시에 동료 청소년들로부터 그들의 이해와 요구, 관심과 흥미 등 각종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기에 청소년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을 도서관프로그램의 주체로 참여하게 한다.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해당 청소년들이 도서관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주요 세력이 된다는 점도 강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와 지원은 다른 주변의 동료청소년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점에서도 이들의 역할은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된다(Patrick Jones 2002). 미국상황은 우리나라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도 청소년들이 단지 프로그램의 대상자로서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에서 그들의 아이디어와 활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4.4 독서회의 활성화

독서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도서관의 청소년독서회는 독서교육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독서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의 형태로 도서관의 독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위이자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책과 공공도서관을 매개로 구성된 독서회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서관의 이해자나 후원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독서회의 가치는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서 소단위 독서조직인 독서회를 비롯한 다양한 독서동아리를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는 활동은 도서관의 핵심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독서회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물적·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서회운영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의 확보, 담당인력의 확보 및 독서회 관련 업무의 지속성 보장, 담당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의 기회 제공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 독서회운영과 관련한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4.5 사서가 주도하는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사서의 전문성 개발

한편, 청소년대상의 독서교육프로그램은 사서가 프로그램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 독서교육이 사서의 핵심

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사서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외부강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공공도서관 현장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지속하는 것은 도서관이 독서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외부강사의 협조와 지원은 필요하나 독서교육프로그램 기획은 물론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사서가 주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담당사서가 독서교육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사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4.6 독서프로그램 이외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서비스의 기획

마지막으로, 미국도서관협회의 청소년도서관협의회가 청소년의 독서를 자극하고 유도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사서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 또한 우리나라 도서관의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15)</sup>

- 십대들이 공평하게 도서관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
- 십대들에게 질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라.
- 십대들이 즐기는 십대들에게 인기 있는 책에 친숙해라.

15) 미도서관협회 청소년서비스협의회 홈페이지 참고

- 도서관의 공간을 편안하고, 접근하기 쉽고 시각적으로도 자극하는 침대들이 끌리는 공간으로 만들어라.
- 침대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시간대에 도서관을 열어라.
- 도서관의 장서,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침대들의 의견과 충고를 물어라.

미국도서관협회의 청소년서비스협의회는 청소년서비스가 결국 청소년의 독서와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하는 데 있다고 보고 청소년을 도서관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좋은 독서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아가 도서관이 청소년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서들은 청소년의 관심과 흥미에 주의를 기울이고, 청소년들의 의견과 충고를 수렴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을 도서관과 도서관의 책의 세계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독서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청소년서비스가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 5. 결 론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속에 내재된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의 방향과 독서프로그램 운영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청

소년 독서진흥과 관련된 활동 및 프로그램은 현재 어린이대상의 독서프로그램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여 도서관에서 청소년 대상의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더해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현장의 논술독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반영한 듯 독서능력개발을 비롯한 논술독서와 관련한 독서교육이 주된 흐름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또한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독서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책읽기 그 자체의 체험을 유도하고 풍부히 하는 데 역점을 두기 보다는 책을 읽게 하는 방법이나 기술, 그리고 책을 읽고 난 뒤에 그 내용을 충실히 기억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주력하는 등 독서교육이 '학습'의 연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아울러 독서와 관련한 사교육시장의 확대로 인해 도서관의 독서교육에 대한 가치는 점점 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서관의 독서교육은 사교육의 독서교육과는 크게 차별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도서관의 독서교육이 사교육기관에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분위기였다.

뿐만 아니라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사서는 그들의 지적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기보다는 주로 예산과 물리적 자원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정지원만 있으면 능력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행사 중심의 프로그램 계획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 독서교육과 관련한 사서의 이미지가 행정가나 자료관리자로 구축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 독서교육의 방향과 운영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은, 공공도서관의 청소년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은 도서관의 의미와 본질, 독서의 의미와 본질에 근거해서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나 도서관은 청소년들을 위한 자발적이고 능동적 독서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관이기에 도서관의 독서교육의 목적을 청소년의 독서흥미를 유발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독서를 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얻어가게 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교

육시장에 만연한 학습에 치중된 독서교육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와는 차별적인 독서의 본질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이 독서의 자발성과 즐거움에 기반하여 청소년들의 독서체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때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발하게 될 뿐 아니라 학교독서교육이 가지는 문제와 현재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시장의 독서교육이 가진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도서관이 우리 사회에 건전하고 바람직한 독서문화가 자리 잡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2004. 『전국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사례집』.
- 국립중앙도서관. 2005. 『전국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사례집』.
- 국립중앙도서관. 2006. 『2007년도 전국독서교실 운영계획』.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6. 『청소년독서진흥 정책 방향 및 실천방안 모색』.
- 김경자. 2005.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수경. 2007.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1): 61-93.
- 김승환. 1999. 『공공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정근. 2007. 지식형 독서와 체험형 독서의 구분, 『2007년 전국도서관대회자료집』. 한국도서관협회: 321-333.
- 노명완. 2005. 『고등학교 독서지도활성화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 문화관광부. 2005.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 이연옥. 2006. 학교 독서교육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3): 209-234.
- 이연옥. 2004. 독서의 사교육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3): 41-63.
- 이연옥. 2007. 고등학생의 정보요구 해결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107-134.
- 이연옥. 2007. 사교육시장의 독서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2007 독서의 달 세미나: 독서

-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문화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101-124.
- 존 테일러 개토, 2006. 『교실의 고백』, 서울: 민들레.
- 창비어린이 편집부, 2006. 좌담: 청소년이 보는 청소년문학, 『창비어린이』, 15: 6-31.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1. 『국민독서생활화방안연구-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Jekins, Christine A., 2000. "The History of youth Services Librarianship: A Review of the Research Literature." *Library and Culture*, 35(Winter): 103-140.
- Jones, Patrick, 2002. *New Directions for Library Service to Young Adults*. ALA.
- Walter, A Virginia & Meyers, Elaine, 2003. *Teen & Libraries: Getting it Right*. ALA.
- Nichols, Mary Anne & Nichols, C. Allen, 1998. *Young Adults and Public Libraries*. Greenwood Press.